



8월 4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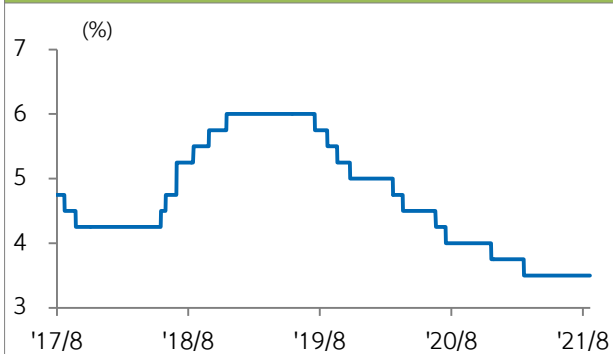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코로나 19 회복 지원을 위해 현행 금리 수준 유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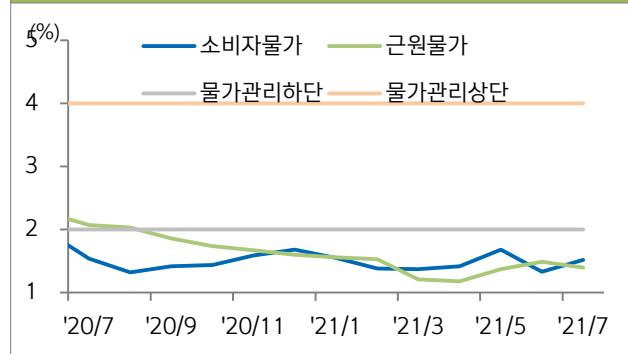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8/19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6개월 연속 동결. 8월 초 발표된 2분기 성장률은 전년대비 7.07% 증가를 기록하여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였지만, 6월 중순 이후부터 진행된 긴급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서 7월 PMI 및 소비자신뢰지수가 급락하였고, 경제활동 부진이 8월까지 이어지고 있어 3분기 성장률은 다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기 하강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우세하였고,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이 이뤄지면서 금리와 환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음
- 인도네시아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52%로 전월의 1.33% 대비 상승하였으나, 근원소비자물가는 전월의 1.49%보다 하락한 1.4%를 기록하여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중앙은행과 정부의 소비자 물가 관리 목표인 2~4%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아세안 주변 국가들에서의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의 공급 side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진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물가를 자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낮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에도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임
- 7월 미국 FOMC 회의록에 포함된 테이퍼링 검토 언급으로 인해 연말 조기 테이퍼링 실시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어 연말로 갈수록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전망됨. 백신 부스터샷까지 검토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선진 백신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코로나19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재정적자 부담이 확대되고 있어 테이퍼링 실시에 따른 환율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금리 인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인도네시아 기준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인도네시아 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8.20	8.13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329.43	1,357.05	↓ -2.04	↑ 20.43	848.21 '20/08/20	1,420.27 '21/07/02
인니	자카르타종합	6,030.77	6,139.49	↓ -1.77	↑ 0.86	4,842.76 '20/09/24	6,435.21 '21/01/13
인도	SENSEX	55,329.32	55,437.29	↓ -0.19	↑ 15.87	36,553.60 '20/09/24	55,792.27 '21/08/17
중국	상해종합	3,427.33	3,516.30	↓ -2.53	↓ -1.32	3,217.54 '20/09/28	3,696.17 '21/02/19
	심천종합	2,388.96	2,468.74	↓ -3.23	↑ 2.56	2,126.88 '20/09/28	2,503.85 '21/07/22
홍콩	H	8,742.44	9,377.79	↓ -6.78	↓ -18.59	8,742.44 '21/08/20	12,228.63 '21/02/17
	항셍	24,849.72	26,391.62	↓ -5.84	↓ -8.75	23,235.42 '20/09/25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060.51	3,171.29	↓ -3.49	↑ 6.51	2,267.15 '20/10/30	3,305.21 '21/07/06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8.20	8.13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10	2.14	↓ -3.70	↓ -47.80	2.15 '21/08/16	3.60 '20/08/20
인도네시아	6.37	6.37	↑ 0.50	↑ 48.40	5.89 '20/12/30	6.98 '20/09/10
인도	6.23	6.24	↓ -0.70	↑ 36.90	5.82 '20/12/04	6.25 '21/03/10
중국	2.85	2.89	↓ -4.40	↓ -29.80	2.82 '21/08/06	3.36 '20/11/19
한국	1.85	1.92	↓ -6.80	↑ 13.00	1.38 '20/08/20	2.20 '21/06/02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8.20	8.13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2,818.00	22,822.00	↓ -0.02	↓ -1.21	22,809.00 '21/08/12	23,206.00 '20/10/06
달러-루피아 (IDR)	14,453.00	14,388.00	↑ 0.45	↑ 2.87	13,895.00 '21/01/04	14,900.00 '20/09/28
달러-루피 (INR)	74.39	74.25	↑ 0.20	↑ 1.81	72.33 '21/02/24	75.46 '21/04/21
달러-위안 (CNY)	6.50	6.48	↑ 0.37	↓ -0.39	6.37 '21/05/28	6.92 '20/08/24
달러-원 (KRW)	1,179.55	1,169.02	↑ 0.90	↑ 8.56	1,081.81 '20/12/04	1,189.74 '20/09/04

주요 뉴스





재무장관,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위협에 대해 강조



❖ 요약 및 시사점

8월초 발표된 IPCC의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에서, 이전 연구대비 지구의 표면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도네시아가 장래에 입게 될 피해가 클 것으로 추산되었음. 이에 따라 재무장관은 관련된 탄소중립 과제들을 조속히 시행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재무장관은 열도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처한 기후 변화로 인한 위협에 대한 우려를 발표하였음. 기후 변화와 관련한 국가간 패널(IPCC)의 리포트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의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가장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영향은 산불 위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도시들을 잠기게 할 수 있는 홍수 위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장관은 IPCC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였음.
- 장관은 기후 변화의 영향과 위협이 잠재적으로 2045년 인도네시아의 독립 100주년 기념 시점에서 잠재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장관은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한 재무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기후 변화는 현재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며, 글로벌 차원에서도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라고 설명하였음.
- 전세계 국가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젊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였음.
- 앞서 인도네시아 기상, 기후 및 지구물리 위원회(BKMG)도 비슷하게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 바 있음. BKMG의 위원장은 정부가 지속가능한 구역 운영 계획의 도입, 재생에너지 활용 계획 등의 정책 도입을 통해서 여러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였음.



세계 각국들은 경제 회복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 중



❖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확장 재정을 시행했지만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달 방안을 마련할 방안을 찾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도 세수 수입 강화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세제개편을 검토중임

- 재무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들이 현재 재정 예산 마련에 애를 쓰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세계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국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고 고심중인 상황임.
- 이를 위해서 세계 각국들은 적절한 조달 수단 마련을 위해서 과세 당국과 협력을 높이고 있다고도 강조하였음. 장관은 인도네시아 재정 예산이 코로나 19 의 타격으로 인해 지난 2년간 확대 운영을 한 이후로도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재정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세수 부문에서의 수입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 세수가 재정 수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 이후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며, 징세 부문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세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방향성을 설명함.
- 재무장관은 재정 수입을 높이는 것에 더해서, 인도네시아 금융 부문의 개혁을 통해서 국가 재정 회복을 위한 조달 방안에서의 혁신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음.



경제조정 장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3.7~4.5% 수준으로 전망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 요약 및 시사점

3분기 들어서 급락한 경제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여전히 연간 3.7~4.5%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심리를 전달하였음. 일자리 창출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사업 등록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 하여서 회복을 자극해줄 것이라고 기대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말까지 3.7~4.5% 수준의 연간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경제 조정 장관이 발표하였음. 2분기에 전년대비 7.07%의 성장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올해 연간 성장률을 3.7~4.5% 수준까지는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출이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능력과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시급성, 경제 규모 등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차별적 운영에 따라 전국이 동시에 경제 침체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여기에 정부가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는 것이 경제의 급락을 막아줄 것이라고 하였음.
-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자리 창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경제 부문의 개혁 조치를 지속해온 것도 성장률을 방어해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보았음. 일자리 창출 법안을 통해서 사업 등록 절차가 일원화되고 간편해지며, 환경을 보호하면서 기존의 노동 정책에 변화를 가져와서 유연성을 높여주었다고 하였음.
- 이러한 일자리 창출 법안에 대해서 월드뱅크는 인도네시아의 지난 40년간에 있어 가장 획기적인 개혁 정책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도 강조하였음.
- 일자리 창출 법안에 따른 사업 등록 절차의 간소화가 더 많은 투자 유입이 가능하게 해줄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되어서 경제 회복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관은 강조하였음.



중앙은행, 디지털 루피아화가 경제 효율성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



❖ 요약 및 시사점

중앙은행 총재는 디지털 루피아화의 도입과 관련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도입될 경우 경제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분산원장과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 비용을 낮추고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표현하였음

- 중앙은행 총재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형태인 디지털 루피아화가 국가 경제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비쳤음. 디지털 루피아화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유통시키고, 여기에 분산 원장 기술(DLT)가 적용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중앙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회의 이후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발표하였음.
- 은행들이 분산원장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서 디지털 루피아화의 도매자금 결제, 처리를 처리하는 것도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면서, 분산원장 이용에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수급에 따른 비용이 줄어든 것이라고 하였음.
- 디지털 루피아화는 소매 거래에서의 자금 유출입 측면에서도 거래비용을 낮춰주면서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총재는 말하였음. 소매 거래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국가표준 지불 API(SNAP(Standard National Open API1 Payment))와 QRIS (인도네시아 표준QR) 시스템에 기반하여서 매우 빠르게 실행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서 디지털 루피아화를 통한 거래 및 지불 비용의 축소로 속도와 효율성이 높아지고 실물 경제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 그러나 여전히 디지털 루피아화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기술 및 사이버 보안 부문의 위협도 존재하기 때문에 추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음.



인니 광업/에너지 포럼, 정부에게 에너지 전환관련 새로운 로드맵 당부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광업/에너지 포럼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7년에 마지막으로 구성한 에너지 정책이 2035년 및 2050년까지도 높은 화석 연료 의존도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성장률을 높이면서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재생에너지 증가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

- 인도네시아 광업/에너지포럼(IMEF)은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장래 경제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새로운 로드맵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포럼의 의장인 Singgih Widagdo씨는 현재의 국가 에너지 정책(KEN)과 일반 국가 에너지 계획(RUEN)이 여전히 많은 부분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말하였음.
- 현재의 에너지 정책들은 2017년에 가장 마지막으로 설정되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도 석유/가스/석탄에 대한 의존 비중을 77%까지는 필요할 것으로 상정해두었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3%로 낮게 잡아두었었음. 2050년까지도 화석 연료의 비중이 69%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준임.
- 이러한 규정들은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에너지 부분에서 탄소 배출 감축을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음. 파리 기후협약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는 8%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과 탄소 배출은 줄여야 하는 서로 딜레마적인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인도네시아는 1인당 3.12 배럴수준의 탄소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력소비다 1,094Kwh수준임. 에너지 소비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은 늘어날 미래의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글로벌 전체적으로 제로 카본을 향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래 에너지 원천은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가져온다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음. 조코위 대통령도 인도네시아가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하며 녹색 경제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의회, 공공 전기차 충전소 확대 필요성 언급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국가 전체적으로 전기차 생태계에서 원료에서 차량 생산까지의 일관된 산업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국내에서의 전기차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충전소의 빠른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도네시아 의회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 인도네시아 의회의 한 의원은 전기차에 기반한 운송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 전기차량 충전소(SPCLU)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음. 향후 10년간 인도네시아에서 1만개 이상의 공공 전기차량 충전소를 늘리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음.
- 전기 차량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고, 깨끗한 에너지 사용을 가져오는 미래 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 2019년 제 55호 대통령령을 발표된 '도로 운송을 위한 배터리 기반 차량 프로그램' 이후에 바로 사용가능한 인프라의 구축 준비가 이어져야 한다고 Hidayat 의원은 강조하였음. 또한 정부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전기 차량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해야한다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량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여러 단계들은 관계 법령을 구성하고, 전기차량에 대한 연구 개발을 늘리며, 전기차량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준비하면서 산업계에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임.
-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전기차량 산업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전기차량의 개발과 관련한 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임. 교통부가 이러한 전기차량의 생산과 관련한 인도네시아의 잠재성을 말하면서 전통 차량들을 전기에 기반한 차량들로 변경해 나가는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음.
- 조사된 바에 따르면 205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량으로 변경함으로써 가솔린 타입의 연료유의 수입을 3.73억 배럴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음. 수입 가솔린 가격이 높음을 감안할 때 석유류 수입으로 인한 무역수지도 개선될 수 있음.



ADB, 인니 중소기업의 일부만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평가



❖ 요약 및 시사점

ADB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각종 지원 방안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의 지원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련 플랫폼 구축을 제안함

- ADB의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의 아주 일부 중소기업들만이 정부의 지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한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지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음.
- ADB가 2,509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통령을 통해 발표된 중소기업 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조사된 기업들 중 22%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77.3% 가운데 52%는 국가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유용하였다고, 25.9%는 유용하였다고 판단은 하고 있다고 하였음. 중소기업들이 14.4%는 이자 보조를 받았으며, 11.1%는 자금 지원을, 12.8%은 신용 보증을, 10.7%는 법인세 감면을, 5.4%는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중소기업의 57.6%가 법인세 감면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10.8%만 감면을 이용하였으며, 60.6%는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음.
-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ADB의 이코노미스트는 기업의 크기와 산업에 따라서 다양하고 선별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경영 및 자본 배분과 관련한 더 많은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